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4호



노·사가 특별한 안전을 하는 쌍용자동차의 3인방

안전하면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특별한 안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 이홍섭, 안전부장 김재영, 17년의 안전 베테랑 환경안전팀의 백창현 차장이 쌍용자동차에서 특별한 안전을 하는 3인방이다.

그 어느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은 안전에 대해 관여는 하지만 직장 동료의 안전을 위해 파트너가 되어 실질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곳은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곳 쌍용자동차는 3인방을 중심으로 특별한 안전을 하고 있어 제4호로 소개코자 한다.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 이홍섭

안전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홍섭 실장은 발로 뛰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다가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1,700여건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도로 메가톤급 활동을 한다.

“안전제일”은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데, 안전에 대한 정보도 모두가 공유하여 함께 해결한다면 쌍용자동차는 타사보다도, 선진 외국보다도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다고 포부를 가지고 있다.

환경안전팀 백창현 차장

84년에 입사하여 안전업무만 14년을 수행한 베테랑 중의 한사람인 백창현 차장은 항상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안전을 지원하다보니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들어가 발로 뛰어 현장의 문제점을 밝힌다.

안전은 현 상태에서 안주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창현 차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곧 쌍용자동차의 안전수준이 선진국 수준의 System을 갖추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안전은 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가 함께 선진수준의 안전을 실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조합 김재영 안전부장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 노동조합 안전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재영 안전부장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부지런한 인물이다. 항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환경안전팀에게 제안한다. 환경안전팀에서는 이러한 김재영 안전부장을 반긴다.

안전은 부지런하게 현장을 발로 뛰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김재영 안전부장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으로 나선다.



특별한 안전인 3인방은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직장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닭은꿍이 있다.